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루카2.21)

■ 오늘의 전례

- 제1독서 : 코헬 1,2; 2,21-23
- 화답송: (악보 참조)
- 제2독서 : 콜로 3,1-5.9-11
- 복음환호송: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음 : 루카 12,13-21

미사

-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30
 - 일요일 오전 8:30
 - 오전 10:15(영어미사)
 - 낮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수·목요일 오후 7:30
-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낮 반 - 주일 오전 10시
- 저녁반 - 목요일 밤 8시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성경의 인물 17 비겁한 아버지 야곱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 야곱은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야곱은 지난 이십년의 세월을 곱씹어 보았다. 그 옛날 형 에사오의 살기(殺氣)를 피해 고향을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던 일, 그리고 라헬과 레아와의 결혼, 삼촌 라반에게 겪은 사기와 실망 등 이십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갔다. 고향을 떠나올 때 청년이던 야곱은 이제 중년이 되어 어엿한 가장이 되었다. 지난 이십년의 세월이 마치 곡예를 하는 것같이 느껴졌다. 고향이 가까워 질수록 이십년 동안 묵은 공포가 야곱을 엄습했다. 그 공포는 다름 아닌 형 에사오였다.

“형 에사오가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을지도 몰라. 혹시라도 형의 노여움이 가시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사실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했었다.

“야곱아, 네 형 에사오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한단다. 그러니 절대 에사오에게 붙들리지 말아라...” 야곱은 두려웠다. 그는 비상한 머리로 다시 필사의 계획을 짜낸다. “형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야곱은 꾸민 재물과 함께 머슴을 앞서 보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당부했다.

“못난 아우 야곱이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라반 삼촌집에 몸붙여 살며 지내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황소와 나귀,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도 거느리게 되어 잘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런데 에사오에게 다녀온 머슴들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전했다. “주인님, 형님 에사오께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일행과 양떼, 낙타떼를 두패로 나누게 했다. 혹시라도 에사오가 쳐들어오면 반이라도 건지려는 알뜰한 속셈에서였다. 그리고 다급해지자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저에게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제 앞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 형 에사오가 가족들까지도 몰살해 버릴것 같습니다. 하느님, 살려주세요...”

야곱은 형 에사오의 마음을 풀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야곱은 자기 소유물 중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 에사오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걱정했다.

그리고 종 여럿을 뽑아 시간차를 두고 에사오를 만나게 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 에사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했다. 형 에사오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였다.

다음날 야곱의 눈에, 바람을 일으키며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는 에사오가 들어왔다. 야곱은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텅 빈 것 같았다. 그렇다고 다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윽고 정신을 차려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을 앞장 세웠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뒤따르게 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뒤로 두어 안전한 곳에 배치하려 했다. 앞서 가는 어린 자녀들이 뒤돌아보며 야곱에게 물었을 것이다.

“아빠, 아빠는 왜 안오세요. 무서워요. 저희와 함께 가세요. 어서 빨리요...” “애들아, 이 아빠는 할 일이 조금 남아 있어. 그러니 어서 먼저 가거라...” 야곱은 떨리는 입술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앞세웠던 비겁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셉은 맨뒤에 있게 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극한 상황에서 가족을 앞장 세웠다. 혹시 에사오가 공격을 하면 앞선 가족들을 남긴 채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도망가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인격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한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할거야. 아니라고 장담하지만... 어디 한번 그런 상황이 닥쳐봐. 다 저 살기 바쁜 거야...”

(평화신문 1999년 9월 19일 허영엽 신부, ‘성서의 인물’)

성삼소식

본당 신심 단체 재무감사

- LA대교구 지침에 따라 본당 내 신심단체 회계 보고를 받습니다.
- 대상: 남성단체-하상회,요셉회,반석회,밀알회
여성단체-안나회,골롬바회,성모회,PTA
신심단체-꾸리아,도서관,빈첸시오회,성가대,
성령기도회,연령회,울뜨레야,제대회,
파티마세계사도직,ME,성경반,
좋은아버지모임.
- 회계연도: 2014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 제출마감: 2016년 7월 31일
(보고서양식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 문의: 본당재무감사(구토마스Aq. 213-268-8043)
(신요한 213-255-0460)

첫 토요 신심미사

- 일시: 8월 6일(토) 오전 8:00
- ※ 미사 전에(7:20am) 묵주기도 있습니다.

구역장, 반장 피정

- 일시: 8월 14일(일) 09:30-17:00
- 장소: 아씨시 피정의 집
- 문의: 지역부장 626-710-3783

주일학교 · 청소년

성삼 한국 학교 교사모집

- 본당 신자이며 교육학 전공 환영.
- 아이들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하실분.
- 문의: 노 아델리나 수녀님 ☎323-828-8876
김 마리아 ☎818-400-7984

성삼 한국 학교 학생 모집

- 개학 및 등록 : 8월 27일(토) 09:00
- 수업시간: 09:30-12:30
- 대상: K-12학년
- 수업료: 한자녀 \$175. 두자녀 \$300. 세자녀 \$425.
(간식비, 교재비, 특활반 포함)
- 장소: 성삼 성당
- 문의: 노 아델리나 수녀님 ☎323-828-8876
김민경 마리아 ☎ 818-400-7984

Steubenville Conference 2016

- 2016년 7월 29일(금)-31일(일) 까지 High School Retreat/Conference에 참가하는 주일학교 교사 및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중에 기억해주세요.

동전 모으기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7월 24일	\$4.75	누계	\$522.82
--------	--------	----	----------

타본당 · 단체

2016년 이나시오 영신수련 9개월 피정

- 시작모임: 2016년 8월 7일(일) 2:30pm
- 피정지도: 이상훈(사도요한)신부님
- 대상: 기도를 배우기원하고, 성서관상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기 원하며,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과의 기쁜 삶을 원하는 신자.
- 장소: 성바오로 한인 천주교회(소성당)
- 문의: 박 카타리나 657-295-5959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특강

- 일시: 8월 9일(화),10(수) 7:00pm
- 장소: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 지하 강당
- 문의: 파티마 세계 사도직 818-913-2540

전례 봉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일	해설	독서
	금주	08:30	송 라파엘	4구역	1구역		수	한 베드로
	12:00	이 다니엘라	4반	3반	목	정 엘리사벳	성령 기도회	
다음주	08:30	박 안토니아	4구역	1구역	금	박 안토니아	금요 성경반	
	12:00	유 에디타	5반	4, 6반				

봉사차레
안내

금주	단체명	시간	장소	다음주	단체명	시간	장소
	다음주	좋은아버지모임	13:00		501호	골롬바회	09:30
	연령회	13:15	유아실	구역장회의	10:00	사목사무실	

단체모임

우리들의 정성 (2016. 7. 24 현재)

교 무 금	4,040.00	교무금 / 건축헌금 / 감사헌금 봉헌(23명) 강신모,김경옥,김광신,김상례,김유석,김진수,김천애,박경자,박운진, 박정환,박지연,박진우,손종수,신향순,양효준,오창근,오흠복,이용일, 주수경,차관선,천부영,최수징,한태호
주일 헌금	2,418.00	
건축헌금	80.00	
반환금	45.00	

본당살림